

고양시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2021. 08. 18. ~ 12. 13.

설계공모 목적

100만 고양시민에게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형사의 공공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고양시의 물리적 랜드마크이자 고양시민들의 청사적 랜드마크로서의 고양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을 본 설계 공모의 목적으로 한다.

설계공모 개요

공모기간 | 2021년 8월 18일(수) ~ 2021년 12월 13일(월)
공모인 제출 | 2021년 11월 26일(금) 10:00 ~ 17:00(UTC+09)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국제설계공모
대지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
대지면적 | 73,095.90㎡(대상지 : 46,578.2㎡, 유보지 : 26,517.7㎡)
면적 | 73,946.62㎡(±2% 범위 내 조정 가능)
추정 설계비 | 금10,731백만원(VAT, 각종 인공비용, 순계약상책임
보충증권 포함)
기본 및 실시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설계기간 | (언하가 기간, 공휴일 포함,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NEW) GOYANG City Hall

Aug. 18 (Wed) ~ Dec. 13 (Mon), 2021

Competition Objective

The primary purpose of the design competition is to provide high-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to 1,000,000 citizens of Goyang-si. Moreover, it aims to select reasonable, creative and future-oriented designs for building Goyang new city hall complex that will become a physical landmark of Goyang-si and emotional landmark of citizens of Goyang-si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o newly establish publicness of a public office building.

Competition Overview

Competition Period | Aug. 18 (Wed) ~ Dec. 13 (Mon), 2021
Entry Submission | Nov. 26 (Fri), 2021 10:00 ~ 17:00(UTC+09)
Competition Method | Open Competi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Site Address | 206-1, Jugeo-dong, Daejeong-gu, Goyang-si, Gyeonggi-do
Area Size | 73,095.90㎡ (Current competition site: 46,578.2㎡,
Reserved site for the future development: 26,517.7㎡)
Total Floor Area | 73,946.62㎡ (allowable within ±2%)
Estimated Design Cost | 10,731,000,000 KRW (including VAT, certification costs,
and liability compensation securities)
Design Period | 14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including the permission period and holidays / the design period
is subject to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http://www.goyang-newcityhall.org>
E-mail : admin@goyang-newcityhall.org

고양in
행복in
고양소식

GOYANG
CITY
MAGAZINE

2021
SEPTEMBER

09
VOL.343



CONTENTS

04 고양 톨보기
베디리 사랑 나눔터

06 사정 ZOOMIN 1
친구야 공연장 가자

08 사정 ZOOMIN 2
2021 고양호수여숙축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고양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메타세콰이아 길

메타세콰이아는 온천나무와 더불어 살아있는
회석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빨리 자라고 생육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풍지수나 가로수로 많이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일산호수공원 메타세콰이아 길은
온 가족 나들이하기 좋은 고양시의 산책 명소입니다.
이번 호에는 석양구민 김정연, 김민아, 김지향, 김태오
가족의 산책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Contents

2021 September vol.343

음성으로 들어요!
'고양소식 소리방'
전월호 다시 듣기



꿈꾸는 고양

- 04 고양돌보기
배다리사랑 나눔터
- 06 시장 ZOOM IN 1
친구애 공연장 가재
- 08 시장 ZOOM IN 2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
- 10 시장잡담
고양시 청년들을 위한 재언
- 12 고양역사 산책
고양정맥리 김중순

함께하는 고양

- 14 가을 만만 고양
고양시로 떠나는 야간관광
- 16 소셜기자가 간다
코로나19 예방집중 증명서 발급법
- 18 고양시민터뷰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대상 수상작
<일라리아> 감독 임대정
- 20 우리 동네 이야기
- 22 실버라이프
-태극권 마스터 고양근
-중장년층을 위한 자격증 가이드
- 26 꿈꾸는 청소년
고양시학교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28 아동·청소년 정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소통하는 고양

- 30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돌아보기
- 32 백과사전
요즘 뜨는 N잡 플랫폼
- 34 이달의 문화행사
- 36 시장·유관기관 정보
- 38 도서관 정보
- 40 의정소식 / 건강상식
- 42 카툰 / 자전거 등록제
- 44 고양시 유튜브 핫클립(Hot Clip)
- 46 고양 사랑방 / 문예마당
- 48 정책퀴즈



Cover Story

9월호 표지에는 원당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배다리 사랑 나눔터와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양시의 대표적 문화행사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즐기는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 → 뉴루프고양 → 시청소식지 →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팩스 031-8075-4904 이메일 gysoso@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준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 주무관 윤정로
편집위원: 김민정 / 김은정 / 노정민 / 오은서 / 임대진 / 이경현 / 이상철 / 이광웅 / 임태형 / 정동일 /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이메일: gysoso@korea.kr 기획·디자인: 더에이치(주)
발행일: 2021년 9월1일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속에서 피어난

배다리 사랑 나눔터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정책은 언제부터인가? 90년대 중반부터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늘어났으며, 2007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부터 2014년 도시재생사업, '새마을사업'까지 역사는 길지 않지만 재생 관련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고양시 주민들 역시 마을을 살리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왔다.

글 사진 박재영(원당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원당지역에 들어선 배다리 사랑 나눔터

원당 지역, 도시재생과 함께하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낡고 불편 불안한 주거환경 등과 같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방법을 제안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더불어,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원당의 경우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이 모여 원당 5구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고, 2021년 7월 '배다리 사랑 나눔터' 개관을 통해 우리 동네 살리기 3여 년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었다. '배다리 사랑 나눔터' 1층에는 지역주민 주도로 설립한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점을 운영한다. 2층에서 4층까지는 방과후돌봄교실, 실버인력뱅크 주거복지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구성되고, 5층 공유 주방과 카페는 바리스타 양성반찬나눔·쿠링 클래스공동체 모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배다리 사랑 나눔터'가 되기까지

계획 초기 '배다리 사랑 나눔터' 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전 건물은 학원과 음식점 등이 운영된 근린생활 시설이었다. 이 건물을 고양시가 매입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그 속에서 주민 임시공간(나눔사랑소통공간)과 주민이용 탁구장 등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공간이 잠시나마 운영되었다.

최초 계획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 매입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 건물의 노후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결과는 '조건부 재건축 등급인 D 등급'.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신축으로 방향을 잡으면 활성화 계획상의 사업예산 변동은 피할 수 없었기에 '활성화 계획 변경'이라는 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만 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으면 주민이 사용해야 할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누구 하나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큰 결정을 위한 방법과 근거가 필요했다. 지역 주민과의 가나긴 논의 끝에 사업구역 내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실행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였고,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설문문항을 구상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현황조사 부분까지 추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500부의 유의미한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배다리 사랑 나눔터의 조성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맞추어 재건축이 27.8%(139명),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리모델링'이 27.0%(135명)으로 0.8%(4명)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함께함'이 26.2%(131명)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진행'이 19.0%(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무수한 논의 끝에 향후 사용해야 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축이 좋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예산 변동만으로 신축을 결정했다. 청밀안전 진단결과가 불려온 큰 파장이었다.

충별 용도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노인인가구가 많은 지역 특징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로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답게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요구사항도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주민편의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배다리 사랑 나눔터의 충별 용도와 규모를 결정해 나갔다.

만약,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과 공을 들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당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었기에 그리고 건물 이 완공된 후 이곳을 이끌어갈 주체가 주민'이기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자 모두가 힘을 모았다.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주민과 함께한 것이다.

지역의 소중한 '장소'가 되길 기대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다리 사랑 나눔터 조성 사업은 건물을 짓는 행위보다 이 건물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거버넌스라는 것이 훌륭히 작동했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민과 함께 만든 주교동의 자산이다. 앞으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줄 것이며, 지역 주민들로 설립된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배다리 사랑 나눔터'의 준공(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시작이다. < >

배다리 사랑 나눔터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고양형 혁신교육 2021 학생응원 프로젝트 친구야! 공연장 가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품고 꿈꿀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줘야 하는 건 어른들의 큰 숙제다. 이런 어른들의 숙제를 돕고자 고양시가 문화생활(文化生活) 장(場)을 아심 차게 준비했다.

글 사진 윤재진(고양소식편집위원)

‘친구야! 공연장 가자?’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고양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양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은 총 11개로 연극부터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극 마당극 발레 등 다양하게 준비됐다.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아람누리과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어울림누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학생들에게 동네책방 도서교환권을 지급해준 친구야! 책방가자!에 이은 2021 고양형 혁신교육 학생응원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다. 고양문화재단과 학교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으로 시작됐다.

첫 공연은 7월 16일 아람누리에서 시행된 연극 <나와 할아버지>다. 이후 오페라 <사랑의 묘약 ‘순정’>, 뮤지컬 <3D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입체공연연극 <내 마음 속 어린왕자>, 클래식 <부전자전 모차르트>, 국악 <모던민요>, 마당극, 무용극 <똥달>, 오페라 <카르멘 ‘정열’>, 연극 <레미제라블>, 발레 <호두까기인형> 등이 202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지난 8월 8일 ‘친구야! 공연장 가자’에 해당하는 연극 프로그램인 <내 마음 속 어린왕자>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직접 체험하였다 무엇보다 사람이 모여 관람하는 극장이다 보니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그 어느 장소보다 철저히 시행됐고 공연 관람객들은 잘 따라주었다.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는 시기 인자라 아이, 어른 모두 마스크를 썼지만, 연극을 본다는 설렘과 즐거운 표정은 마스크 밖으로도 역력했다. 프로그램 특징상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초·중·고학생이 주를 이루었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삼삼오오 친구들과끼리 박을 이뤘다. 공연을 관람했다. 연극의 요소를 잘 조합한 <내 마음 속 어린왕자>의 극 몰입도는 높았다. 배우의 익살스러운 개그 장면에 관객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어린왕자 말이 맞았다. 극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와 청소년들 표정에서 만족하는, 한층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계속되어야 할 문화공연

코로나19로 평범하게 공연·전시를 관람하던 문화생활은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생생한 관람 체험은 또 다른 좋은 교육이다. 이번 ‘친구야! 공연장 가자’ 프로그램은 미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인목을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직접 경험하여 이 목적에 더욱 많은 시민이 부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이들,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 혹은 친구, 지인과 함께 뜻깊은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 |
|---|---|
| 1 | 3 |
| 2 | |
1. 새라새극장 입구 공연보러 가는 가족
2. 공연이 끝난 후 나오는 시민들
3. 새라새극장에서 공연 대기 중인 시민들

친구야! 공연장 가자 공연안내

국악콘서트 : 모던민요

송소희 & 두번째달 & 김대일

일시 9. 3(금) 오후 7시 30분, 9. 4(토) 오후 5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별모래극장

학교 밖 예술세상 틈누리

탈춤극 : NO FACE 노페이스

일시 9. 29(수) 오후 8시, 9. 30(목) 오후 8시

10. 1(금) 오후 8시, 10. 2(토) 오후 4시~8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야외공연장

상주단체 ‘공연배달서비스간다’ 무용극 : 똥달

일시 10. 29(금) 오후 8시, 10. 30(토) 오후 4시

10. 31(일)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연극 : 레미제라블

일시 11. 5(금) 오후 7시 30분, 11. 6(토) 오후 2시~6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오페라 콘서트 카르멘 <정열>

일시 11. 20(토)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시 12. 4(토) 오후 3시~7시, 12. 5(일) 오후 3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공연 및 예매문의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1577-7766

사업문의 고양시 평생교육과(031-8075-2284)

거리예술로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

일상은 활기를 잃고 마음은 지쳐만 가는 시대.
마스크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숨통을 틔워 줄 문화백산 같은 축제가 다가온다.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 작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고양호수예술축제.
오는 가을, 예술이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를 느껴 보자.

글 김한빈(고양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 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울예술사터 '그림이 살아있다'

도심 곳곳을 들쭉이는 거리예술의 향연

고양시 도심 속 공원, 광장, 거리 곳곳이 무대가 되어 관객들을 맞이한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양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거리극, 무용,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불꽃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을 아우르는 축제다. 올해의 축제는 오는 9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5주간 44개의 거리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고양호수예술축제

각각각색의 작품들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고양호수예술축제! 놓치기 말아야 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1. 다양한 창작 예술 프로그램

가. 피막주간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프로젝트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와 연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일인 9월 3일에는 세계적인 월드뮤직 그룹 '노를마치 예술단'이 평화의 소재로 창작한 음악을 통해 축제의 문을 활짝 연다. 피막주간에는 현대무용가 김영미가 거리무용 <술>을 통해 환경적 철학, 팬데믹 시대의 인간 생존 문제 등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몸짓으로 구현해 낸다.

2. 모험이 즐거운 다양한 공연

가족 단위 관람객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말자. 축제에 열기를 더할 예술불꽃 화랑의 <불도깨비>, 와이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는 월간 서커스의 <버스를 기다리며>는 모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서울예술사터의 <그림이 살아있다>는 그림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발레리나들의 몸짓으로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 창작중심 단체의 <단디우와 꿈을 찾아서>도 이번 축제의 기대작 중 하나로, 크레앙에 줄을 매달아 공중에서 무용을 선보이는 에어라일(공중 퍼포먼스)을 선보인다.

3.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축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공연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주일사터 꽃의 거리극 <전염병 시대의 마사지법>은 관객이 공연자로 참여해 종아로 마사지를 하며 치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관객 참여극이다.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작품에 참여하여 힐링의 시간을 누려보자.



(위 사진부터)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 '노를마치 예술단'
비주일사터 꽃 '전염병 시대의 마사지법'

관객은 거리 두기, 예술은 더욱 가까이

이번 축제는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분산형 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는 9월 3일(금)부터 10월 10일(일)까지 5주에 걸쳐 11일간 진행되며, 장소 역시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 등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어 관객 밀집을 최소화한다. 정부의 거리두기개편인 단계 조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례 없는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며 모두에게 희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오는 가을,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에너지로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글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

기간 2021. 9. 3(금)~10. 10(일)

장소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 등

프로그램 및 일정 고양호수예술축제 누리집(<http://www.gcf.or.kr>)

“응, 나 고양시 청년이잖아.” 고양시 청년들을 위한 제언

글 김태은(고양시장연구원 자문위원)



김태은

-성동구청 창업발전소장/창업컨설팅도 -주식상장 250회 돌파 창업경험 34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기 지역혁신가(2021)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사회혁신지원과 위원장(2020)
-서울특별시 속의혁신인턴협의회의 속의분과 회장(2021)
-서울청년센터 성동구청 운영 위원(2020~20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제1기 부위원장(20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2019)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박사과정 수료

Part 1. 어른들에게 “아리라고 놀라지 마요.”

한 주민 참여 공론장 아이스브레이킹 진행자는 다섯 가지 소개문을 쓰되 하나를 거짓으로 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를 맞춰보게 했다. “저는 창업 경험이 세 번 있습니다”라는 ‘사실’이었는데, 참가자들은 “그 나이에 세 번 창업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거짓이라고 선택했다. 창업진출원 시민사회혁신위원회 첫 미팅, 위원장 출마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용기 내어 후보에 임하자 담당자님의 우려 섞인 목소리 “보통 어린 분들은 서기나 총무를 하시는데...” 경험상 사회에서는 “청년을 미숙하거나 어린 존재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시행되었고, 자치단체들은 모범(模範)이 생기기 전부터 ‘청년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덕분에 2021년 8월 12일을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조례만 619건이며, 입법 예고된 조례도 551건이다. ‘청년’이라는 의미에 ‘절정(絶頂)’에 이른다든 뜻이 희망적이어서일까, 아니면 요즘 90년생이 온다고 하나(?) 일단 ‘청년’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된 것일까. 이유가 어찌 되었건 청년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 새삼 반갑다.

지난해에는 성동구청청년정책네트워크 제1기 부위원장으로서 청년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했던 청년자율예산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해 제안 예산 모두 식감 없이 지켜냈고, 올해는 민주서울 속의분과의 회장으로 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숙의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순간은 속의분과 회의를 진행할 때였다. 다양한 세대의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대부분, “왜 청년 정책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를테면 “일자리 카페 대신 일반 카페를 가면 되지 않느냐”, “청년센터가 꼭 있어야 하느냐” 등이었다. 회의 진행자로서 증진을 지켜야 했기에 위원님들에게 속의를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결과 일부 사업들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세간의 유행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직 ‘청년’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인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

청소년·청년 대상 ‘민주주의, 시민참여’ 감사로서 강연하면 “시민의

1. ‘부패, 7년’이 대체가 되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약 119만 개사(81만 창업기업은 5년 사이 14배만 개사로 대폭 상승했으며 대표직인 재능공유 플랫폼 크몽의 2020년 11월 누적 거래액은 1천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신 호적업 10개 중 5위에 꼽을 만큼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2. 최근 유행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원리에 따르면, 공론장 등에서 ‘위협’하지 않고 구성원이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각이 공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라는 회의적 물음이 꼭 나온다. 학문적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 ‘효능감(效能感)’ 이슈다. 심리학자 반두라(Bandura)가 1977년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개인 스스로 가지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된다. 물론 정책 제언에는 행정의 언어(Language)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참여하는 후속 세대들이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서도 신뢰성과 ‘충족성’이 있을 때 참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청년담당관이 게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다른 자치단체들은 아동과 ‘청년’을 하나로 묶거나, 혹은 ‘일자리 주무부서’ 등에서 정착수혜 대상의 일부로 청년을 치부하는 것 같다. 사회에서 청년은 조금은 어린 존재인 것 같다.

Part 2. 정책가에게 “취·창업을 넘어선 노마드 창작의 시대가 옵니다.”

취업 시장에서 오랜 명언(?) 중 하나.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갈 회사가 없다.”고, 기업들은 “대기업에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뽑을 인자가 없다.”다. 구직 희망자 대부분 대기업 혹은 공무원과 공기업을 향한다. 그것만이 인생에서의 청담(淸潭)이자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이라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것 같다. 사회가 규정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 청년들! 애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看過)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면 큰 틀에서 모두 급여 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MZ세대들은 인사이트를 찾기 시작했다. 집값이 날로 높아져 급여 수익만으로는 10년 후 ‘내 집 마련’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암호화폐’ 현상이, 젊은 세대들의 ‘주식 열풍’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금기시되던 ‘돈’이라는 낯선 그대로의 표현이 사회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창작(創作)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창업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라면,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전담 멘토들이 창업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생 근로자였던 사람이 큰일을 먹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훈육한다는 것은, 공감 부분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

연과 우연히 만난 창업자조차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사업 모델을 일반화하는 창업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이른바 ‘열고기를 잡는 살아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육성과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B2C, B2B, B2G 등 형태는 달라도 결국 ‘사업’은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Part 3. 청년들에게 “미움받으면 아때요?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모란 돌이 청 맞는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게 좋다는 우리 사회의 어쩌면 암묵적 룰’일 수 있다. 이때 누군가 자신의 권리라며 주장을 하면 생각보다 불편해하는 시선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다들 꼭 참고 살아가는데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 수 있고, 괜히 책임만 지고 남들에게 미움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등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튜브 박막례님의 “자신의 창단에 맞춰 춤을 춰”라는 메시지와 책 <미움받을 용기>의 위로 덕분에 지역혁신가 사회과학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움받으면서 할 일을 해냈다. 물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반드시 졌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역할(役割)’의 공존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청년들은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디자인씽킹이니 ‘숙의’니 하는 어려운 말보다 나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 동료에게 물었다. “왜 참여해?” 그러자 돌아온 대답. “응, 나도 처음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 명이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내니, 구조가 바뀌더라!” 당시까지 세계관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말로 슈뎨터(Schumpeter)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創造的破壞)다. 무일 허든지 자신만의 박자와 창단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발전에 공헌하는 고양시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왜 참여하느냐”는 물음에 이런 대답을 들으면 좋겠다.

“응, 나 고양시 청년이잖아.” 글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김태은, 모은영, 양은호 (2020).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분석: 활용 동인을 중심으로. 1949 정보화정책, 27(1), 99-114.

김태은, 최승민 (2019). 청소년을 위한 개인적 인지가 온라인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리나라의 암묵적 현상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1(1), 335-364.

조선시대 이상적 관료상 고양 청백리 김종순

청백리는 관직 수행 능력은 물론 청렴, 근검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을 일컫는다. 고양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이다. 고양의 청백리는 누가 있었으며 청백리 정신이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출처: 사진: 아람산(고양시마죽현의회 명예회장)



김종순 묘소(마죽현)

청백리 정신의 의미는?

청백리란 예로부터 청빈한 생활을 하며 관직에 올라서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봉공하는 선비의 전형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일컫는 말로 벼슬자리만을 탐하고 백성을 수탈하며 나라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폭리를 취하는 탐관오리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옹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자애, 청렴, 절용을 청백리의 조건으로 들기도 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렴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조선시대에는 청백리 제도를 운영해 탁월한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관리를 청백리에 녹선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하였다.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자 충절의 고장인 고양에는 어떤 청백리가 있었을까?

육조 청백리 김종순

고양의 청백리로는 조선시대 세종부터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섬긴 육조 청백리 김종순이 있다. 김종순은 1427년(세종 9년) 23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33세가 되던 1437년(세종 19년)부터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 1439년(세종 21년)에는 종7품인 전농시의 직장으로 승직하였고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여 종5품인 증부령에 제수되었다. 이는 관직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종5품에 다다른 매우 빠른 출세로 볼 수 있다. 김종순은 이후에도 청선한 선비들의 중요한 핵심 보직을 의미하는 청요직으로 승정원 도승지, 한성부 편윤,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특히 김종순은 경주김씨 일문으로 세종에서 성종까지 여섯 명의 임금을 모셨으며 세종대에는 3년 동안 승지로서 세조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참여하며 육조 청백리로 녹석되었다.

그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김종순이 경기도관찰사로 근무하고 있던 1463년(세조 9년) 봄에 임금이 경기도를 순행하다가 내신에게 명하여 행락(행용 자루)을 점검해 보니 쌀과 콩 두어 말만이 있었다. 이를 본 임금은 청렴하고 간소함이 너무 자나쳐 관찰사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임금을 모시고 경기도 지역을 순행하는 역할을 하는 관찰사의 행락에 들어 있는 식량이 너무 적어 밥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것으로 그의 검소함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또한 김종순은 백성을 생각하며 진휼을 장려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임금이 잦은 사냥을 나가는 것을 견제하며 기근이 잇달아 발생해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진휼에 힘써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언하

였다. 이러한 강직한 직무 수행은 세조의 신뢰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에 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종순은 1483년(성종 14년)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 성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김종순은 여러 조정을 두루 섬겨서 시사에 숙달하고, 비록 드러난 자취는 없을지라도 또한 지나친 일도 없었다. 이처럼 정사를 큰 흠결 없이 청렴하고 무난하게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생애를 보낸 것이다. 그의 시호 역시 공호(恭誥)라고 하여 일을 공경히 하고 옛사람을 받들어 모시고(恭) 나이가 오래도록 장수하였다는(誥) 의미를 나타낸다.

공호(恭誥)의 뜻

경사공상공(敬事供上恭)

-일을 공경히 하고 옛사람을 잘 섬겨 모시는 것을 공이라 하고,

마년수고호(暮年壽考誥)

-연차가 오래도록 장수한 것을 호라고 한다.

선조의 가르침은 미래세대의 이정표

며칠 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김종순 묘소에 다녀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백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던 그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김종순은 46여 년간 청렴하고 청백한 공직자로서 오늘날의 공직자 윤리의 모범이 될 훌륭한 선조이다. 우리는 훌륭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정표로 삼아 미래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성장하는 동력 미래세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등불이 되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고양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인 김종순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미래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육조 청백리 김종순 묘

고양시로 떠나는 야간관광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오는 9월 18일부터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관광이 시작된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경기도의 역사·문화·생태·평화 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양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갤러리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역사의 발자취 체험과 평화를 염원하는 야간도보여행 프로그램인 '행주 달빛 야행'도 진행된다. 예술을 품은 행주의 밤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박서화(고양시관광과 청년인턴)



행주산성의 야경



대첩문 포토존

빛을 되찾은 행주의 밤

행주마을은 뒤쪽에 덕양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과거에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규제가 행해지면서 옛 과거 모습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행주산성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화유적지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다. 이에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야간관광을 통해 행주동 영광의 순간들을 재현하고자 한다.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빛으로 물들인 야간관광을 통해 과거 행주의 정취를 느껴보자.

행주 설화길, 숨겨진 이야기

행주산성에는 옛날부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행주치마 이야기부터 권을 장군과 관련된 설화인 양천강 보물상자 이야기, 권을 장군과 이항복의 일화를 그린 권철대감과 감나무 설화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다양한 설화들을 한데 모아 설화길을 조성하였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옛 추억을 상기시키는 설화길을 걷다 보면 고양에 대한 애정이 절로 피어난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행주의 옛이야기를 즐겨보자.

예술이 빛나는 밤

❶ 화려한 융복합 미디어와의 향연 개막공연

오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는 행주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한 개막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공연은 행주 '웅어' 설화의

<금원>과 <탄사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공연의 핵심은 설화를 표현한 무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다. 웅어는 행주나무에서 잡아 임금님 수라상에만 오르면 귀한 물고기였다. 아예 없던 어부소년 '금원'과 양반집 귀수 '탄사'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에 담긴 감성과 새로운 기술이 빚어낸 환상적인 무대를 즐기며 낭만을 느껴보자.

개막식 2021. 9. 25 (토)

행사장소 행주산성대첩문

주요프로그램 <금원>과 <탄사의 사랑 이야기>*

* 2021년 경기도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선정작 / '19연극비행' 퍼터와 'MBC OX' 합작품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❷ 황홀한 밤의 세계로 빠져드는 행주갤러리&행호 음악회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의 문화예술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전 달하고,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행주갤러리, '행호 음악회' 등을 기획했다. 행사기간 동안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그림 및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국악공연부터 전자바이올린 연주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 자리가 없어진 예술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소원달이기를 하고있는 청년 인턴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관광

- 9. 18 ~ 11. 14 (매주 월요일 제외) 빛의 거리 야간개장(오후 6:00~10:00)

행주포토존

- 9. 18 ~ 10. 17 (매주 주말) 빛의 거리 야간개장(오후 6:00~10:00)

버스킹공연, 소원 돌멩이 채취, 달빛 야행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행사 및 프로그램 일정변동 가능



안심 예방접종 배지

백신 맞고 증명서 발급받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법

코로나19 3분기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자에 한해서 거리두기 지침이 달라지거나 문화생활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사진 울산에고양시 소셜기자

예방접종에 대처하는 비혼 자세

3분기에는 임신부를 제외한 18~59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우선접종으로 시행되었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접종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두통이나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당일에는 목욕이나 과격한 운동 및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1차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 안심 예방접종 배지를 배부받게 된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이 배지가 접종 증명을 한다 고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접종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방접종 증빙을 할 수 있는 수단으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스티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세가지다.

1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고양시 예방접종센터 3개소에서는 1차 접종 시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2차 접종 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 시 현장 발급해준다. 지난 7월 2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온라인 발급,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2 예방접종 스티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과 함께 접종 증명 스티커 부착도 함께 시행 중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함께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지갑 속에 신분증은 늘 함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종이 증명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전자증명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요즘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손쉽고 디지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디지털 증명서를 QR 스캔을 통해 검증하고 글로발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예방접종 유무를 증명할 수 있어 용이하다.

※ 네이버 카카오톡, 통신 3사 인증(24시간) 및 토스 앱에서도 검증가능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상황이나 용도를 고려한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은 각자의 사용 편의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성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은 종이 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되고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 코로나 종식을 위해 서로 조심하고 철저한 방역과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힘써야 하겠다. 글





사회와 역사의 음지에
잔잔한 빛 비추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대상' 수상작
〈말리언니〉
감독 임대청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탐구하는
본연의 의무를 실현하며 발전해왔다.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일어난 현상이나
존재했던 사람에 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역사현상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장르다. 고양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우연한 계기로 마주한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말리언니〉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임대청 님 역시 진실을
탐구하고자 '다큐영화'라는 긴 항해에
올랐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다큐영화 만드는 고양시 공무원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미래비전팀 임대청(46) 부팀장이 제작한 다
큐 〈말리언니〉가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데 이어, 관객심사단이 선정한 관객특별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말리언니〉는 2019년 암으로 별세한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 여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이다. 홀트 여사는 스무 살에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자인 부친을 따라 한국으로 건너와 평생을 고아와 장
애인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말리언니'로 불렸다. 영화의 제목은 이러
한 홀트 여사의 희생적 생애를 집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고양 600년'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공모전의 진행업무를 맡
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수많은 사진 중 유독 제 눈길을 사로
잡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바로 홀트 여사가 보낸 이름 없는 무명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합
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그의 다큐영화 제작은 애초의 계획과는 다
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홀트 여사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 외부 영
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1년여 동안 영상팀과 함께 관련 촬영을 이어가던 중, 다른 보
적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 허탈감을 느꼈지만, 그는 촬영을 중단할 수
없었다.

어렵게 촬영에 동의해준 홀트 여사에게 도리가 아닐뿐더러 영화를
완성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촬영을 이어가
야겠다고 결심했죠."

꿈을 향해 무작정 달려온 시간

이후 5년의 시간 동안 그가 들인 노력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다. 평
일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주말에는 홀트 여사의 흔적을 좇는 데 매
진했다. 2019년 홀트 여사 별세 이후에도 그의 영화작업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환송대(방파제)라는 영화를 잡히게 되었고, 〈말리언니〉는
해당영화의 스틸컷 편집방식에 착안해 지금의 작품으로 재편집됐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맹방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제 영화는 돈이 아닌, 오롯이 시간으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심사위원인 방은진 배
우가 저에게 이런 심사평을 해줬어요. '두 개의 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
데 만든 사람이 공무원이었다. 경쟁한 전문가들을 제치고 1등을 했으
니 치기작을 만들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
았던 제 꿈을 인정받은 순간이자 두 번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됐어요."

신문방송학 전공자로서 늘 영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그에게 어찌
면 영화제작은 필연적인 것이었을 지도 몰랐다.

사회와 역사의 음지를 조명하는 작품 만들 것

임대청 님은 홀트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생각보다 감정
표현이 없고 냉정한 모습이 무척 낯설었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행
하며 죽음이 체화되고, 결국에는 화석화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홀트 여사의 온 생애는 오롯이 고아와 장애아들의 삶,
죽음과 함께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입양과 혼혈장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일
때였습니다. 스무 살의 꿈 많은 간호학과 학생이 아버지의 부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국으로 건너와 평생을 편견과 맞서 싸운 거예
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트 여사의 업적이
 폄하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제 영상이 홀트 여사의 업적을 기
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임대청 님은 평소 없는 사람에 관심이 많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미
래가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약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직
은 치기작을 구상 중이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재조명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우리 삶
 곳곳에 대한 다양한 시선으로 데뷔작을 뛰어넘는 치기작을 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본다. ☆



영화 〈말리언니〉 스틸컷

말리언니(2020)

감독 임대청
장르 다큐멘터리
러닝타임 30분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

멋진 소통의 공간

글 사진 이종오(향기로운 마을 만들기 회원)



※ 장항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항동은 택지개발로 이뤄진 신도시이며 2019년 2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0 10월 마지막 입주를 마쳤다. 연립주택인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단지가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만 세대에 3만 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중앙으로는 항동천이 흐르고 봉산과 망월산이 마을을 휘감듯이 둘러싼 자연친화적인 곳이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주변 산에서 아카시아꽃이 필 때쯤이면 아카시아 향이 온 마을에 스며들어 온다. 저녁에는 행공이 소리와 온갖 풀벌레 소리가 들려서 마치 어느 한적한 시골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신도시보다 더 높다.

우리 마을 공동체는 올해 초 고양시 마을자치공동체에서 주관한 천 개의 마을 꿈 프로젝트에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조기축구팀 '향기로 FC'와 어항 취미동호회인 '물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모임'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행사로 마을 뒷산인 봉산을 탐방을 했고, 6월에는 항동천 생태 탐방 및 마꾸라지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한 덕분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 하반기에는 서오릉 역사 탐방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작은 어항 만들기 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않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면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 하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식약하다고만 여겨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그 선봉에 선 우리 마을 공동체 '향기로운 마을 만들기'가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배우고 연대할 수 있는 멋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번 모든 활동들을 모아서 멋진 마을축제를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항동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라운제나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 '우리 동네 페미니스트' 활동

글 사진 고지선(라운제나 회원)



※ 장항2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여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다. 얼마 전에 끝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한국 여자 배구팀 덕분이다. 강호 터키와 일본을 이기고 4강까지 오른 한국 여자 배구팀을 보면서 하나의 팀(Team)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즐겁고 보람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웠다.

여자 배구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라운제나를 떠올렸다. 나에게는 그런 팀이 있으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임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라운제나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엄마, 딸, 아내 등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살기' 위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매일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다가 2020년 작년부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우리 동네 페미니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고양시가 더 성평등한 동네가 되기를, 여성이나 소수자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작년에는 온평에 있는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 '살림'과 강남구에 있는 페미니스트 협동조합 '두잉'을 견학했다. 여러 지역에서 이미 공동체를 만들어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올해는 구상원까지 생각을 확장하면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리라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6월에 홍승은·이진송 작가를 초청해 여성주의 글쓰기 강의를 들었다. 내 이야기가 혹시 너무 사소한 것은 아닌지,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꺼내는 건 아닌지 검열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조언은 참 소중했다. 아직도 우리 이야기를 꺼내려면 조금 망설여 지지만, 10월에는 각자 쓴 이야기를 엮어서 여성주의 책을 출간하려고 한다. 고양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한 책이 될 것 같다. 다가오는 9월에는 '페미니즘으로 동네와 소통하다'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연다. 고양시에 있는 저로 웨이스트숍 사례와 천주에 있는 여성 문화협동조합 사례를 듣고 어떻게 나아가도 페미니스트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온라인 강좌도 구상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선정했다. 각자도생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시대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체를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기운 빠질 일도 많다고 한다. 라운제나가 조금 느슨한 공동체라서 그런지 아직은 힘겨움이나 슬픔을 느낀 적은 별로 없다. 구상원들이 몸이 아플 때 말고는. 하지만 기쁨을 얘기하려면 줄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일을 따지 못해도 여자 배구팀이 훌륭하고 멋진 것처럼, 라운제나 공동체는 원대한 목표는 없어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모임이니까. 이런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을 고양시민들과 더 나누고 싶다.

느림의 미학 전파하는 태극권 마스터 고영근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정(靜)으로 동(動)을 누르며, 느림으로 빠름을 제압하는 무술 바로 태극권'을 일컫는 수식어다. 거대한 도시 속, 디지털화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른 속도에 잠식되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느림과 고요함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태극권 마스터, 고영근(68)님을 만났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운 에너지 태극권

태극권은 중국의 전통무술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2억 명의 수련 인구가 향유하는 생활 스포츠이기도 하다. 이를 방증하듯 태극권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전무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심신의 건강 수양법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굳건하지 않은 손과 발의 움직임 속에는 유연함과 융화된 기운이 함께 깃들여 있다. '태극권은 요즘 트렌드인 빠르고 순간적이 힘이 요구되는 여타의 운동과는 달리 느리고 정적입니다. 하지만 버티고 유지해야 하는 동작이 많아 코어와 하체의 힘이 많이 필요하죠. 때문에 고요함 속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고영근 남에게 태극권을 배우는 수강생의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다. 태극권이 관절에 무리가 없어 장년층에 좋다는 의사의 권유로 그를 찾아오거나, 복잡한 일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한없이 유려하고 물 흐르듯 진진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어느 무술보다 강인한 심지를 갖춘 태극권은 마치 인생의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층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대학교수에서 태극권 마스터로

35년 동안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정치 역사를 가르쳤던 그는 3년 전 대학에서 정년퇴임하고 본격적으로 태극권 전파에 나섰다. 젊은 시절 대만 유학에서 처음 접했던 태극권은 저를 단번에 매료시켰어요. 하지만 가정의 역할을 하며 공부할 이어가야 했던 당시에는 당장 태극권에 입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태극권에 입문한 것은 40대 들어서다.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하다가 자연스레 젊을 적 매료됐던 태극권이 떠올랐던 것. 이후 고영근 남은 방학을 이용해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을 찾아가 태극권 고수들에게 직접 사사를 받으며 실력이 일취월장해 공인 7단의 경지에 올랐다. 특히 중국 정통 태극권의 한 문파인 양가(楊家) 태극권의 살아있는 전설 양진탁 스승에게 사사를 받고 제자로 인정받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고영근님이
집필한 서적



것은 그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력이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태극권 전도사라고 말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게가님은 태극권 클럽을 조직해 지도하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어요. 또한 국내외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기도 하고 몇 해 전부터는 전국대회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영근 남은 태극권 수련자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고, 태극권의 원리와 적용을 정리한 연구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다. 그의 남다른 태극권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바른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느림의 미학'

디지털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서류를 이 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상황에 떠밀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기도 한다. 아날로그 회귀현상, 디지털 다이어트 등의 시대적 행태적인 움직임이 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고영근 남은 숨 막히는 속도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수련을 통한 '고요함과 느림'이라고 말한다.

"태극권은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균형감각 등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과 고요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이러한 수련의 시간을 갖는다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해도, 바로 길을 되찾는 탄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태극권을 마음껏 수련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오랜 삶의 지혜와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 제2막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격증 가이드

지식은 공부를 통해 채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경험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없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및 노후대비, 자기계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자격증 정보를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성기매거진



농업분야의 전문가 '농산물품질관리사'

매년 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를 막고 투명한 유통망의 확보와 질서 확립 등의 취지로 지난 2004년 도입된 국가자격증이다.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윤회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분야로 4050세대 중장년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이다.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제2차 시험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필답형 (단답형 및 서술형)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회계 등의 책임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못지않게 조명되며 은퇴 이후 노후대비를 위한 희망 자격증 시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엔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이미 지어놓은 집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공공시설, 상가 등)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업무 즉,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방법	합격 기준
제1차	1. 민법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당 40문항 (총 120문항)	객관식 5지선택형	각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40점 이상 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제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2. 공동주택 관리실무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24+ 주관식 16 총 80문항)	객관식 5지선택형 및 주관식 (단답형)	



산림교육전문가 '숲 해설가'

산림문화와 휴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수목원, 휴양림, 자연생태공원 등 자연을 찾는 관광,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를 해설해주는 전문가이자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게 자연을 지도하는 교육담당자이다. 관련 의뢰가 들어오면 숲 해설을 위해 현장 사전답사를 하거나 관련 책자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숲 해설가가 되려면 입문과정 30시간, 전문과정 16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심화과정은 평균 30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숲 해설가 초급 자격증을 받으려면 전문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교육과정은 숲 연구소, 충북숲해설가협회, 한국숲해설가협회, 전북생명의 숲, 숲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 '한국어교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주로 대학교 부설 어학원, 평생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외국 학교에 파견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어 중장년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으로 꼽힌다. 한국어교원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은 1, 2, 3급으로 구분되며 학위과정대학, 학점은행제과 비학위과정(양성 과정)이 있다.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꿈을 응원한다. 상담, 교육, 진로, 자기계발, 동아리, 체육,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글: 편집부 | 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들의 삶과 꿈을 지원하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어린 시선과 무조건적인 걱정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이에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꿈드림은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각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 진입도 돕는다.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꿈드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꿈드림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올해 경기도 청소년의 날 우수청소년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꿈드림의 36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청소년은 검정고시로 고졸학력을 취득한 후 홍보영상 기획제작 및 자치위원회 활동 참여로 리더십 역량을 키우며 학교밖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 체험을 하였으며,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해 자신만의 그림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양시 꿈드림 협력업체인 서점, 카페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직업체험과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체험했다. 그 결과 개척정신이 뛰어나며 삶에 도전적인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다. 꿈드림을 이용하는 또 다른 청소년은 과거에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현

1	2
3	4

1. 직업체험-전문직업인과의 만남
2. 자립지원-자립지원장
3. 직업체험-폴리스트 과정
4. 취업지원-검정고시 학습연도장(대안)

재는 고양시 꿈드림의 학교밖청소년 대표로서 프로그램에 새로 등록하는 청소년의 적응을 돕고 있다. 그에게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다녀본 적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곳이다.

학교 밖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드림은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밖 청소년의 공간을 제공한다. 전화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초기상담 담당자가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니즈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안내 및 접수한다. 만 9~24세로 유예, 제적, 지퇴, 퇴학, 미진학 등의 이유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지원되며 신청 및 문의는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전화하면 된다. ☎

2021년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구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취업지원	기초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취득 지원 대표 프로그램: 검정고시 학습연도장
2. 직업체험	다양한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직업연도장, 직장체험, 바리스타 과정, 폴리스트 과정 등의 프로그램 운영 대표 프로그램: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3. 자립지원	실질적인 경제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대표 프로그램: 자립자립장 카페 운영
4. 사회봉사	배려심과 공동체 정신 함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표 프로그램: 동물고양·낭독봉사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방문접수: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사무실
운영시간: 9:00~18:00 월~금
전화: 031-995-4275 FAX: 031-995-4279
홈페이지: <http://www.goyf.or.kr/sb/> 유튜브: 고양시꿈드림
페이스북: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스타그램: goyangdream

※ 별도 신청기간이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시기가 다르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특성화 및 고양시 특화프로그램은 자격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꿈을 함께 그려나가는 공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놀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작실부터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Travel 카페까지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창의의 공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을 들여다보자.

글·사진, 오혜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문화공방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열린공간 마련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은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D프린팅·목공·가죽공예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작실, 보드게임·독서·취미활동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식공간, 직접 요리를 해 볼 수 있는 요리실, 실내에서 운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암벽등반장 온라인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실, 악기 연주·노래 연습을 위한 밴드실과 보컬실,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하며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Travel 카페까지 이 다양한 공간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공간은 자유롭게 출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울방과 과제·회의·공부 등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다. 이곳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관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031-995-4181) 또는 방문하여 공간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교육문화, 문화체육 강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원데이 클래스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은 청소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활동, 청소년 주도의 활동, 청소년 자립 및 보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지역 사회 변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의견 제안,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능력을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직접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기획·운영·평가하는 사회 참여형 기획봉사단이 있다. 인권, 환경, 권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내용의 봉사활동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누가 정해준 틀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계획하고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됐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변화된 것 같다고 느껴요."

-기획봉사단 참여 청소년-

이 외에도 고양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양성평등 활동, 일상생활에서 능동적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성장지원 활동,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청소년 평화통일 활동 등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이야기'와 '도전'이 담긴 곳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은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는 틀에 짜인 활동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꿈에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목적이자 이유이다.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연극이라는 매개체에 진솔하게 담아 표현하는 창작연극단 활동,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모의 창업 활동,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고민하는 글로컬리지 활동, 직접 디자인한 옷을 제작해보는 패션디자인 활동, 다양한 사회 경험이 필요한 후기청소년을 위한 후기청소년 커뮤니티,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방 등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창작연극공연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

이용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이용시간 월요일~토요일(10:00~21:00), 일요일(10:00~18:00)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

홈페이지 <https://www.gyfor.kr/sg/>

문의 031-995-4181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툰아보기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문제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시기에 포용적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회복과 포용: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포스터, 짧은 동영상, 수필 3개 부문에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 및 각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권지향성 및 작품성 등을 고루 심사하여 포스터 12편, 짧은 동영상 5편, 수필 7편 등 총 24편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4개월간 시민이 직접 쓰고 그린 인권공모전 수상작을 싣고 작품에 담긴 인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심사위원 인터뷰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고양시인권증진위원 회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번 고양시 인권작품공모전 심사를 맡은 김형완입니다.

이번 인권작품공모전에 접수된 수필, 동영상, 포스터는 모두 고르게 훌륭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차별문제 등을 차분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선작을 선정하는 데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작품의 형식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전의 취지를 감안하여 메시지의 선명함과 간결한 미래지향성을 가진 작품을 우선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어렵게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선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권이 활짝 피는 고양시를 기대합니다.

수상소감

포스터 아동·청소년 부문 최우수(홍서현)

안녕하세요. 고양시 인권 작품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홍서현입니다. 다들 쉽게 오르내리는 계단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에게는 계단조차도 장애물이 되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의 작품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터 일반 부문 최우수(보석 팀)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우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사람과 사람,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차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 인권 존중, 배려, 평등이 어우러져 더욱 맛깔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내역 (포스터 부문)

등수대상	수상내역	성명(팀명)	제목	등수대상	수상내역	성명(팀명)	제목
아동·청소년	최우수상	홍서현	누군가에겐 절망입니다.	일반	최우수상	보석(팀)	인권비밀밥
	우수상	김현아	인권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우수상	이유빈	아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윤영(팀)	색연필			이지수	재난에 잠기는 순간
		김민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차별			김미선	행복한 우리집?
	장려상	유승연·유가연(팀)	도활하는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장려상	이지수	관심과 소통
		윤영(팀)	차별과 혐오 정말 사라질까요?			홍성은	한 번의 가짜 평생의 피해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포스터 부문 수상작 돋보기

아동·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누군가에겐 절망입니다.

홍서현
장애인의 인권은 중요하며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
인권비밀밥

보석(팀)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밀밥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비밀밥을 차별 극복과 건강의 아이콘으로 떠올렸다. 비밀밥의 각 재료들이 인권, 존중, 배려, 평등을 상징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비밀밥처럼 어우러져 더욱 맛깔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상
인권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김현아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인권의
무게(가치)는 똑같아야 한다.

일반 부문



우수상
재난에 잠기는 순간

이지수
재난은 모두에게 닥쳐오지만 사
회적 약자들부터 잠식한다. 우리
모두 함께 재난을 이겨내려면
힘을 모아 아픔을 도와야 한다.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상
색연필

윤영(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동양인의 모습을 색연필에
빚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고
하나라도 빠지면 자리가
남는 색연필통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상
아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유빈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
서 아동 돌봄시설이 비대면이 되
고 아동이 점차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인권을 위해 모두
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수필 부문 수상작은 10월~12월 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론 부족하다! 요즘 뜨는 N잡 플랫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조직 내 '좋은 사람'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N잡 플랫폼이 그것이다. 본업을 통해 업무 퀄리티를 인정받은 N잡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N잡 플랫폼도 뜨고 있다.

글 편집부 | 자료출처: 트랜스인사이드, ZDNet Korea



추천! 'N잡 플랫폼'

1 IT 리모트 헤드헌팅 서비스 '시소(seeo)'

스타트업과 IT 회사 경합이 있는 검증된 인력들이 모여 있는 추천제 커뮤니티 RUFREE에서 최적의 팀을 구성하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의뢰자가 그 프로젝트의 PM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발자 900명, 디자이너 200명, 기획자 100명이 RUFREE 멤버로 가입되어있다고 한다.

2 사회혁신 조직과의 협업 '솔로워크'

솔로워크는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16년간 1,200곳 넘는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공공기관 등 사회혁신 조직과 협업해왔다. 웹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모집하고 있다.

3 IT 전문가매칭 서비스 '윌티드 리스'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 플랫폼 서비스 윌티드에서 2020년 출시한 서비스다. IT 직무 경력이 있는 200만 전문가를 2~3일 안에 매칭시켜준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이 없고, 매칭 매니저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N잡러를 양산해낸 '리(Gig) 경제'

업무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하는 N잡이 뜬 데에는 '리 경제'의 확산의 여파가 주요했다. 리 경제란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으로써,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지자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공연팀(Gig)들이 생겨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리 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기업 우버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하고, 독립 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개인 차량을 소유한 일반인을 배송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검증된 전문가 'N잡러'

이러한 리 경제 상황 속에서 N잡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본업을 통해 그 사람의 업무 퀄리티가 검증되기 때문이다. '크몽'이나 '숨고' 등 재능마켓 서비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N잡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이유 역시 이와 같다.

해외에서는 N잡 플랫폼을 통해 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선례가 나왔다. 해외 유명 N잡 플랫폼으로는 업워크(Upwork), 파이버(Fiver),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 플랫폼 톱탈(Toptal), 번역 전문 프리랜서 연결 프로즈닷컴(Proz.com) 등이 있다.

미국에 숙취음료를 처음 선보인 82랩스 이시선 대표는 낮엔 테슬라에서 근무하면서 음료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로 파이버 활용을 꼽았다. 해외 8곳의 공장을 알아보는 데 든 비용이 단 1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32개 외국어 어휘 학습 앱 드롭스의 창업자는 에스토니아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파이버와 번역 전문 프리랜서 연결 사이트 '프로즈닷컴'으로 한국인 번역가와 한국어 음성 녹음 전문가를 섭외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글

이달의 문화행사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2021 아람 로열 클래식 I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일시 9. 11.(토)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인정받는 한국 대표 두 아티스트인 피아니스트 김선옥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만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한다. 김선옥과 클라라 주미 강은 유럽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함께 실내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듀오 무대이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롯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연구에 힘 쏟아 온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옥은 2021년 베토벤 소나타 전국 사이클 음반 발매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베토벤 신보 발매에 맞춰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일 그들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해 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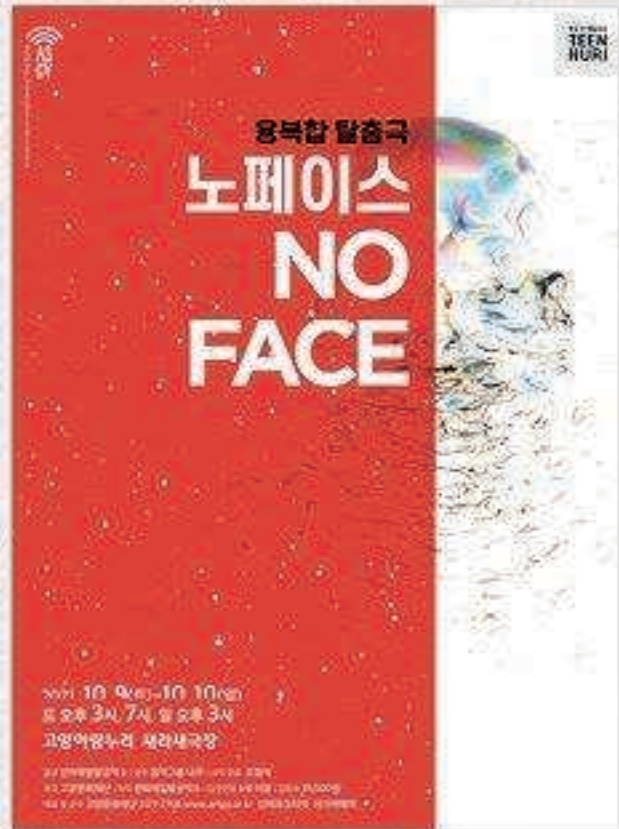
고양어울림누리



2021 별모래PICK시리즈 송소희x두번재달x김대일 국악콘서트 <모던민요>

일시 9. 3.(금) 오후 7시 30분, 9. 4.(토) 오후 5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 원

'송소희'와 '두번재달'이 해석한 경기민요인 <모던민요>는 한국음악의 소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기민요만을 선정해 현대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든 음악이다. 앨범에 총 7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경기민요 6곡과 창작된 1곡(비나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매화타령, 군밤타령, 오돌토기,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태평가, 비나이다 외 남자 소리꾼 김대일의 등장으로 풍성한 '별모래 PICK'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2021 학교밖 예술세상 틔누리 용복합 탈춤 <노페이스 NO FACE>

일시 10. 9.(토)~10. 10.(일)(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 원

탈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용복합 탈춤 <노페이스 NO FACE>.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풍자와 해학, 흥겨운 탈춤과 노래로 표현하며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이다. 세 가지 전통탈이 등장하는 이 작품을 통해 탈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존의 탈과 탈꾼들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최신 키네틱 아트 기술을 활용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아워무대에서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다.



2021 아침음악나들이 보컬리스트 특집 시즌6 III <김조한>

일시 9. 30.(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 원

1993년 결성된 3인조 R&B 그룹 '솔리드'의 리드보컬로 데뷔하여 한국 R&B의 신화적 인물로 자리매김한 김조한이 깊어가는 가을 아침음악나들이 무대로 찾아온다. 솔리드 활동 당시 '이 밤의 끝을 잡고', '천생연분' 등의 수많은 명곡을 남긴 김조한은 5집 앨범을 끝으로 그룹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1998년 새로운 솔로 앨범을 시작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관객들을 만나오고 있다. 솔로 활동과 더불어 OST, 기획 음반, 피쳐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작곡가는 물론 프로듀서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김조한. 그의 감성이 담긴 소울풀한 목소리를 이번 공연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정·유관기관 정보

도서관 정보

의정소식 / 건강상식

고양소식

GOYANG NEWS

#1

2021 고양 청소년 영상 공모전

응모자격 전국 중·고등학교생 및 동등한 연령(14~19세)의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및 2~4인 팀 참가 가능

응모주제 ① 자유주제 ② 미래세대가 꿈꾸는 고양(시승격 30년 기념)

공모부문 중등부문/고등부문(주제 ②는 부문 통합 시상)

응모일정

-접수기간: 2021. 7. 23.(금)~10. 1.(금) 24:00까지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2021년 10월 중(예정)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pectory.net/goyangteenfilm>)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02-6953-1310(goyang@contestweb.ne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고양청소년영상공모전)

#2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모집기간 2021. 9. 13.(월)~9. 23.(목)

모집내용 환경교육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자문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16명)

응모자격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및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접수방법

-방문: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건우프라자)

2층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업무시간 09:00~18:00

-문서: 24. 문서24(<https://open.docu.go.kr/>) 이용 접수(2021. 9. 23.(목)

18:00까지 도착분 한정)

제출서류 공개모집 지원서(각종 자격하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고시 공고에서 서식다운로드

문의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8075-2830)

#3

2021 고양시 청년대상 디지털 트립마스터 양성 과정 모집

교육기간 2021년 8월~10월(주 2회 이론 및 실습(기업탐방)/22시간)

모집대상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 청년(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교육내용 관광산업트렌드-플랫폼 비즈니스

블로그 브랜딩-콘텐츠 마케팅 전략

관광업 직무-인스타그램 콘텐츠 구성 및 운영

매력있는 면접 TIP 등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goyangica@nate.com)

※ 참여신청 서식은 고양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goyangtou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고양시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양수경

(031-927-9974, goyangica@nate.com)

#4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캠페인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1. 9. 17.(금)까지

모집대상 고양시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 재(휴)학생

내용

활동주거	모집인원	활동내용
주 1회 (월~금 중 논의 후 결정)	2명	-이웃 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진행 (대안제출대안) -지역사회 홍보 활동 평가

활동혜택 -타 학교 학생들과 친목 도모

-봉사 시간 및 서포터즈 활동 확인서 발급

장소 고양시문촌7동통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서구민막사로 340)

문의 최연주 사회복지사(070-8693-2272)

#5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 개소

개소일자 2021. 9. 13.(예정)

지사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빌딩 10층

(역석역 5번 출구)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 고양구는 서울특별시에서 관할하지만 고령요양 시 경기북부지사에서 업무처리 가능

공사소개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04. 3월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경기북부지사는 고양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경

기도에 설치하는 세 번째 경기남부·수원·경기중부·안양) 지사임

정책금융상품

주택연금: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상품

보증자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

문의 대표전화(1688-8114)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6

'우리동네 반려텃밭' 재능나눔 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텃밭조경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을 갖고 있는 고양시 지역주민 누구나

모집기간 9. 1~9. 30.(한 달간)

활동내용 한동복지관옥상에 위치한 '우리동네반려텃밭(지역주민 공유 텃밭)'의 조경 활동(식물 배치, 조경 인테리어, 식물 정리 등)

신청방법 우선신청 및 카카오톡 '고양시한동종합사회복지관' 검색 후 채팅창 신청

문의 031-905-3400(김선미 팀장, 김진욱 복지사)

#7

식량작물 종자신청 및 공급일정

작업명	품종	신청일 (변동가능)	공급일 (변동가능)	신청기관
옥수수	참옥수수(대형2호, 이삭형 등), 종실아름다운(도립종, 감당종), 감관종 등	1월	2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검은콩, 참깨, 들깨, 땅콩 등	2월~2월	3월~3월	
콩	대만	2월~3월	4월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팥	아라리	2월~3월	4월	
메밀	보리새알콩, 재단할콩, 종실(과우) 등	7월~8월	9월~10월	
감자 (대기종)	수미 무배 등	7월~8월	11월	
감자 (중기종)	수미, 하얼 서종 등	11월~12월	이듬해 1월~4월	
배	가야지 1호	11월~12월	이듬해 3월	
	청도원, 대안배, 삼원, 화산할배 등	12월	이듬해 3월~4월	
	유색배 등 특수배	12월	이듬해 3월~4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방문 및 팩스

신청조건 고양시에 농경지가 있는 농업인

문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기술보급팀

(031-8075-4280~4282/031-8075-4288)

※ 공급 품종 및 공급량, 공급가격은 매년 상이하므로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일정 및 공급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전사소녀답장너 #디카페인유자차 #아무진세미집순이 #특이점이온걸바속속이 추천합니다.

글 고양시도서관센터

#1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아슬아슬남궁민 | 문학동네

책을 읽으며 어렸을 적 친구와 주고받았던 교환일기장이 생각났다. 한 페이지를 뚝뚝하게 써서 주고받으면 그 친구와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기분이었다. 편지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어 상대방도 나도 특별해지는 기분. 타격대격하는 유패할 속에 역사나 영문장을 남기는 두 사람.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이 책을 추천해본다. #전사소녀답장너

책속한줄

"우리 사이엔 늘 오해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테죠. 언젠가선 생님이 쓰셨듯 우리는 대체로 패배하고 가끔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패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로를 모르니까요. 오해는 흔하고 이해는 희귀하니까요."

#2

아버지에게 갔었어



신경숙 | 창비

책 속의 아버지는 넷째 딸인 주인공보다 장남이 중요하고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인물이다. 말수가 적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면밀히 알 수 없지만 무덤덤하게 드러나는 행동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란다. 이 세상에는 자상한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을까. #디카페인유자차

책속한줄

"생각을 하지 말자. 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더 생각할 게 없을 때까지 생각을 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

#3

완전한 행복



정유정 | 은행나무

이 책은 드라마 뒷이야기가 궁금해 다음 화를 누르는 것 마냥 잘 시간을 이미 넘긴 상황에도 책장을 마구 넘기게 된다는 후기들이 흥미 없던 이도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 악에 반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과거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엔 과하다는 마음만 한가득 가지고 읽었다. 섬뜩하고 흡입력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여 내가 정의하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밤을 보낸 나날들이었다. #아무진세미집순이

책속한줄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4

괘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전삼혜 | 문학동네

달에 글*를 쓰는 회사 '제네시스'가 모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깊어지지 않을 어떤 감정을 순간 포착한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SF를 읽으며 지구에서 흔들리는 별을 바라보는 것 말고 어느 새 우주에서 흔들리는 지구를 바라보게 된다. 다른 상상력으로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회상하듯, 이 세상의 마지막 미소를 머금고 아껴 먹듯 아껴 읽었다. #특이점이온걸바속속이

책속한줄

"물론이라면, 아니 이 모든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에야 알게 된 것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자극적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2522629>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정협의회 6차 회의 참석

이길용 의장이 7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기관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정협의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길용 의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4개 도시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회 의정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고양시의회, 방역요원 격려물품 전달식 참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7월 28일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양시학원연합회(회장 이재범)가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길용 의장과 이흥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김수환 의원, 고양시학원연합회 이재범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및 폭염과 전염을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양시학원연합회에서 준비한 글쫄까 30발을 보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상식

가을철 야외활동 주의보
설치류매개 감염병

설치류는 220속 약 1800종으로 포유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분포하여 사람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설치류매개 감염병은 언제든지 인간 사회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염병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출처: 질병관리청

설치류매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전파 방식에 따라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이 쥐에 직접 물리거나, 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료품 등을 섭취할 때 병원체의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매년 9~11월이면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으로 발생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설치류매개 감염병 1. 신증후군출혈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 한타바이러스: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신증후군출혈열(유형성출혈열)과 비증후군(HPS)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

증상: 발열, 출혈, 소변량 감소 근육통, 오한, 두통

대표적인 설치류매개 감염병 2. 렘로스피라증

렘로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된다.

증상: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발진

위험요인

오염된 논밭에서 작업, 웅덩이·개울에서 오염된 물과 접촉, 동물과 접촉,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농부, 광부, 어부, 상하수도 작업자, 수의사 및 동물사육사, 도축장 작업자, 낙농업자, 군인 등의 직군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류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수칙

1. 쥐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
2.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3.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작업에 예방접종을 받고, 농작업·야외활동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진료받기

렘로스피라증 예방수칙

1.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2.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3.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진료받기



고양시 유튜브 핫 클립(Hot Clip)

출처: 고양시 영상홍보팀

#1

로컬푸드에 대한 '불꽃' 열정!
일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오현석 단장
<https://youtu.be/g4H9dQZMG28>



신선한 우리 지역 농작물을 착한 가격에 판매 중인
일산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그곳에서 농가 소득 UP 소비자 만족 UP을 위해
오늘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오현석 총괄단장의 하루
함께 구경하러 가실까요?

#2인생비결 #로컬푸드 #일산일무

고양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자막으로, 함께 만나요!
고양시 유튜브는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포용 중심의 무장애
도시를 위해 이주민과 청각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 자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을 제공합니다

※ 배리어 프리 자막: 음악·소리 정보를 자막을 통해 알려줘요



고양시·고양TV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영상으로 만나는 고양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고양시', '고양TV'를
검색하세요~

#2

'주민자치회'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youtu.be/hsWITQ82o1Q>



2022년부터 고양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합니다!
우리 마을의 주인은 바로 당신
주민자치회 A to Z까지 살살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내가사는곳은 #내가만들어간다

#3

'28청춘창업소'에서
창업의 날개를 펼쳐주세요!
<https://youtu.be/9tcy93H0Jg>



반독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가 100% 사업비를 투자해 만든 창업공간 28청춘창업소!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금전, 인력, 인프라 등이 부족할 때
28청춘창업소에서 창업의 공할~락 펼쳐주세요!

#창업의길 #고양시가 #안내합니다

이번달 추천 영상

FPV DRONE 레이싱 드론으로 본 고양



<https://youtu.be/2RpR5puTD0U>

그냥 아슬아슬한 대로 봐도 괜찮을까?
유튜브를 켜고 고양시로 떠나볼까요?

코로나19 뮤직비디오 cover-AKMU(악뮤) '전쟁터'



<https://youtu.be/yynGMOWtY4w>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현장근무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고양고양이 '앙궁' 출전(Feat. 배달특급)



<https://youtu.be/gWkTsCvKtkc>

높은 배달 수수료는 가라!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중개 수수료
고양페이 결제 시 최대 15% 할인
공공배달업 배달특급 파이팅!

정책 QUIZ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래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고양소식 9월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 □□ □□□' 조성 사업은 건물을 짓는 행위보다
건물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2.

□□□□□□□□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양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가리국, 무용,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불꽃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을 아우르는 축제다.

정답 : □□□ □□ □□□,
□□□□□□□□□

(#1 힌트: 고양소식 p4 / #2 힌트: 고양소식 p8)

참여 기간 9월 17일(금)까지

신청 엽서, 이메일(gysosic@korea.kr)

당첨자 발표 고양소식 10월호에 기재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카카오톡 챗봇 개설

우울 자가검진

센터서비스 안내

상담요청

센터 이벤트/행사 안내

24시간 자살예방 서비스 이용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
고양시자살예방센터를 검색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QR코드 접속